Daishin 증권

2026년 04월 24일 금요일

Morning Meeting Brief

Strategy

[다음주 시장은?] KOSPI 사상 최고치 행진 지속, 순환매 대응에 집중

-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협상 과정에서 노이즈, 금리인하 기대 후퇴, 유가 90달러 회복에도 불구하고 KOSPI 사상 최고치 행진 중.
- 한국 20일 수출 504억 달러로 전년 대비 49.4% 증가. 20일 수출 금액 기준 사상 최대.
- KOSPI가 6,400선 돌파, 사상 최고치 행진에도 불구하고 선행 PER은 7.7배 수준에 불과.

문남중. namjoong.moon@daishin.com

[퀀틴전시 플랜] 견고한 실적/펀더멘털과 중동 리스크의 힘겨루기

- 테헤란 내 군사적 충돌 우려로 요동친 금융 시장
- SK하이닉스 호실적과 GDP 서프라이즈, 견고한 펀더멘털 재확인
- 실적 기대와 차익실현 속 업종별 차별화

이경민. kyoungmin.lee@daishin.com

Global Strategy

[THE GLOBAL 주간 증시 전략 / 4월 5주차] 글로벌 증시, 매파적 통화정책에 흔들리지 않는다

- 4월 5주차, 글로벌 중앙은행 통화정책 주간. 이란 전쟁 영향, 매파적 통화정책 결과 불가피
- 글로벌 증시, 매파적 통화정책보다 3가지 요인에 더 주목하며 상승세 지속 예상. 비중확대
- 1. 이란 전쟁 종전 수순, 2. 양호한 미국 기업이익, 3. AI 성장 기대감

문남중. namjoong.moon@daishin.com

Macro

한국 GDP : 하방만큼 상방도

- 1Q GDP +1.7%QoQ 성장, 수출 호조 외 소비/투자 등 내수도 고르게 반등
- 2026년 성장률 전망 2.0% → 2.5%로 상향, 명목 성장률은 10% 상회 전망
- 중동 전쟁 불확실하나, 지금은 하방 위험만큼이나 상방도 열려 있음

이정훈. jhoon.lee@daishin.com

자산배분

[글로벌 자산배분 전략] 봄바람과 함께 찾아온 글로벌 제조업 경기 회복제목

-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기대감 속에 투자자들의 관심은 악재에도 불고하고 견조한 기업 실적으로 이동
- OECD G20 기업경기 신뢰지수 회복 본격화. 글로벌 경기 추가 개선과 기업실적 상향조정 가능성 확대
- 연준의 통화정책 전환에 대한 우려는 채권시장 변동성 확대 요인. 유로존과 일본의 기준금리 인상 가시화도 주목

조승빈. seungbin.cho@daishin.com

일본 부동산

[Market Review] 2 월 도쿄 맨션(아파트) 시장과 오피스 시장 이상 무(無)

- 2월 도쿄 23구 신축 맨션 공급량 전년비 +26% 증가. 평균 공급가는 14,280만엔으로 전년비 +37% 상승
- 2월 도쿄 23구 기존 맨션 평균 거래가 전년비 +34% 상승한 8,424만엔. ㎡당 가격 70개월 연속 전년비 상승
- 2월 도쿄 도심 5구 오피스 공실률 2.2%로 12개월 만에 소폭 상승. 단, 평당 임대료는 21,969엔으로 25개월 연속 상승

나미선. misun.na@daishin.com

산업 및 종목 분석

[1Q26 Preview] 두산: 본업 확장과 중장기 시너지 강화 (목표주가 +40.1% 상향)

- 두산에너빌리티 지분가치 증가와 전자BG 지속 성장으로 TP +40.1% 상향
- 전자BG 사업 CAPEX 투자가 가져올 향후 실적 개선
- SK실트론 매입으로 후공정 밸류체인 완성→중장기 성장 모멘텀 확보

이경연. kyungyeon.lee@daishin.com

[1Q26 Review] LG 디스플레이: 1Q 선전, OLED 투자 확대

- 1Q26 영업이익은 1,479억원(338% yoy)으로 컨센서스 부합
- 2H26 영업이익은 8,069억원으로 34.6%(yoy) 추정, 실적 호조
- OLED 매출 확대, 2026년 영업이익 78.5%(yoy) 증가 추정

박강호. kangho.park@daishin.com

[1Q26 Review] SK 하이닉스: Shaper and Longer

- 메모리반도체 초호황을 재차 입증한 실적 발표
- 순현금 100조원과 주주환원 강화는 현실성 있는 목표
- 목표주가와 매수의견 유지. 적극적 매수 접근이 필요한 시점.

류형근. hyungkeun.ryu@daishin.com

[1Q26 Review] 신한지주: EPS 증가 + 총환원율 상승=멀티플 리레이팅 요인

- 증권 실적 눈부신 개선, 순이익 컨센서스 소폭 상회
- 연체율 상승에 따라 경상적 대손비용 레벨 높아지는 것은 우려 요인
- 새로운 밸류업 정책 제시, '27년부터 3년간 전액 비과세+ 배당 상한X

박혜진. hyejin.park@daishin.com

[1Q26 Review] KB 금융: 비은행 계열사의 눈부신 약진

- 비은행 계열사의 눈부신 약진, 1분기 순이익 사상 최대 실적 달성
- 환율 상승에도 흔들림 없는 CET1 비율, 하반기 자사주 5,100억원 가능
- 금융지주 가운데 증권 비중 가장 높아 '26년 가장 유리

박혜진. hyejin.park@daishin.com

[1Q26 Review] 현대차: 딱 예상한대로

- 1Q26 OP 추정(2.5조) 부합/컨센(2.7조) 소폭 하회. 무난한 실적 시현
- 이란 전쟁 우려로 고점 대비 -21% 하락했으나, 하반기 모멘텀에 주목
- 2H26 SDV 페이스카/제네시스 양산 적용/주요 신차 모멘텀 보유

김귀연. Gwiyeon.kim@daishin.com

Strategy

Strategist 이경민
kyoungmin.lee@daishin.com

퀀틴전시 플랜

[다음주 시장은?] KOSPI 사상 최고치 행진 지속. 순환매 대응에 집중

- 미국–이란 종전 협상 노이즈에도 불구, 코스피 최고치 경신
- 사상 최고치 행진에도 불구, 선행 PER 7.7배에 불과
- 저평가/소외주 중심의 순환매 대응 유효

미국–이란 종전 협상 노이즈에도 불구, 코스피 최고치 경신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협상 과정에서 노이즈, 금리인하 기대 후퇴, 유가 90달러 회복에도 불구하고 KOSPI 사상 최고치 행진 중.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 연장 선언과 함께 협상이 여전히 유효함을 확인했기 때문.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종전 합의/타결을 위한 힘겨루기 과정이라고 판단. 핵심 관건인 호르무즈 해협의 공급망 정상화 여부는 더디기는 하지만, 선박 이동이 증가하면서 불확실성 완화.

이번주 케빈 워시 청문회와 3월 소매판매 서프라이즈(전월대비 1.7% 증가(예상 1.2%)) 영향으로 채권금리, 달러화 반등. 하지만, 증시 영향력은 제한적. 현재 증시 국면은 금융/유동성 장세를 지나 실적/매크로 장세이기 때문. 금리인하 기대 후퇴보다 미국 경기 모멘텀이 여전히 견조함을 재확인한데 따른 모멘텀 강화.

사상 최고치 행진에도 불구, 선행 PER 7.7배에 불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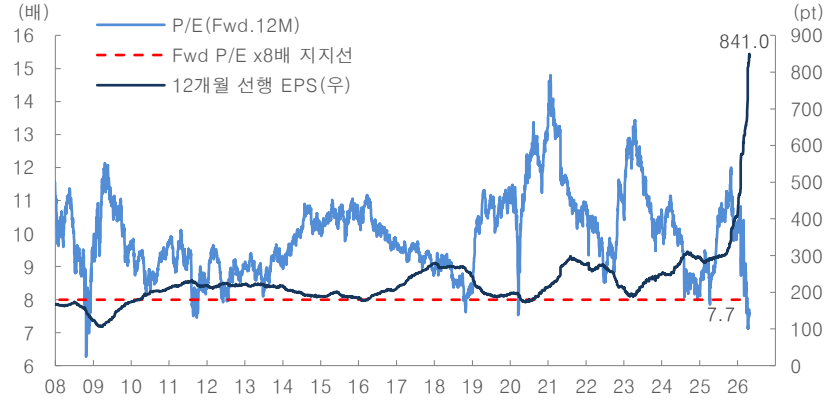
다음주는 미국 3월 산업생산과 FOMC 회의 예정. 소비에 이어 제조업 경기까지 호조를 보일 경우 증시 상승추세 지속 전망. 한편, FOMC에서는 금리동결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현재 지정학적 리스크와 유가 레벨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에 대한 판단에 주목. 다만, 3월 FOMC 직후 금리인상 우려를 선반영했고, 실적/매크로 장세가 전개 중임을 감안할 때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일 전망.

KOSPI가 6,400선 돌파, 사상 최고치 행진에도 불구하고 선행 PER은 7.7배 수준에 불과. 선행 EPS가 841p까지 레벨업된 영향(3월말 666.6p). 글로벌 매크로 환경이 견고한 가운데 KOSPI 실적 전망 상향조정 지속으로 실적과 펀더멘털 간 괴리 여전히 큰 상황. 당장 경기가 악화되거나, 실적 전망이 급격히 하향조정되는 경우만 아니면 밸류에이션 정상화 전개 예상. 1차 목표는 PER 8배인 6,700선, 2차 목표는 9배인 7,500선.

저평가/소외주 중심의 순환매 대응 유효

다만, 본격적인 실적 시즌을 맞아 실적 기대 선반영으로 단기간에 강한 상승세를 보인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 등보다 실적 기대보다 우려가 반영되면서 소외되어 온 저평가/소외주(인터넷, 제약/바이오, 미디어, 엔터 등) 중심의 순환매 대응 유효. 실적 쇼크만 아니라면 실적 대비 주가 간의 괴리율 축소 국면 전개 예상.

지정학적 불확실성으로 괴리 확대. 12 개월 선행 P/E 7.7 배.



Strategy

견고한 실적/펀더멘털과 중동 리스크의 힘겨루기

- 테헤란 내 군사적 충돌 우려로 요동친 금융 시장
- SK하이닉스 호실적과 GDP 서프라이즈, 견고한 펀더멘털 재확인
- 실적 기대와 차익실현 속 업종별 차별화

Strategist 이경민
kyoungmin.lee@daishin.com

미국-이란 협상 노이즈에도 코스피 신고가 경신

호르무즈 해협 내 긴장이 지속되는 상황.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을 공격, 나포했다는 소식. WTI는 90달러를 상회했고 경계 심리가 확대되는 모습

미국은 기존 종전 협상 시한 23일 오전(한국시간)을 앞두고 휴전 시한을 연장. 이란의 강경 태도에도 미국의 종전 협상 의지 자체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평가

이러한 상황 속 장 초반 테헤란 일부 지역에서 방공망이 가동되며 군사적 충돌 우려가 확산. WTI 선물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며, 국내 증시도 연동되어 약세 흐름

이란에 대한 공격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며 유가가 진정됐고, 코스피도 반등에 성공

SK하이닉스 호실적과 GDP 서프라이즈, 견고한 펀더멘털 재확인

한편, SK하이닉스는 1분기 실적으로 매출 52.6조원(+198.1% YoY), 영업이익 37.6조원(+405.5% YoY)을 발표. 영업이익률은 72%로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함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따른 수요 증가와 가격 상승에 기반한 것이라고 밝혔으며, 안정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장기공급계약(LTA)도 함께 제시

또한, 한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3.6%, 전기 대비 1.7%를 기록하며 예상치를 큰 폭으로 상회. 이는 반도체 및 IT를 중심으로 한 수출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한국의 견고한 펀더멘털 증명

다만 SK하이닉스가 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였고, 반도체 업종은 혼조세 양상

반도체: 삼성전자(+3.2%), SK하이닉스(+0.2%), 이수페타시스(-6.9%)

실적 기대와 차익실현 속 업종별 차별화

실적 기대감이 유효한 상황 속 한국-베트남 MOU 체결로 정부 모멘텀까지 부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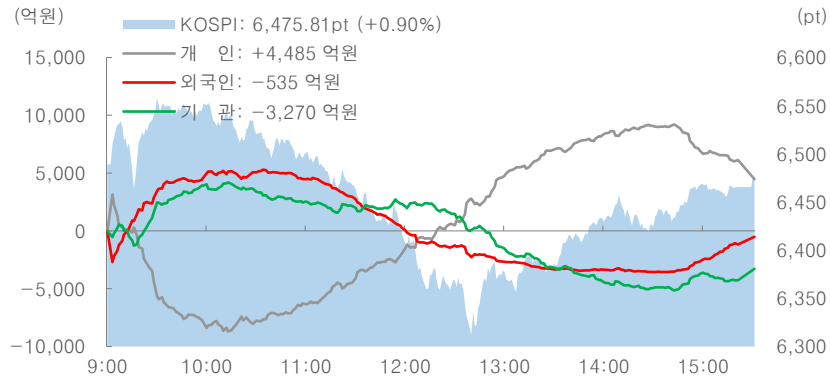
전력기기: LS ELECTRIC(+11.7%), 효성중공업(+6.0%), HD현대일렉트릭(+3.6%)

원전/건설: 두산에너빌리티(+5.8%), 한전기술(+4.9%), 현대건설(+3.9%)

단기 과열 우려로 인한 차익실현 매물 출회

2차전지: 삼성SDI(-4.4%), LG에너지솔루션(-3.7%), 에코프로머티(-5.9%)

KOSPI 투자주체별 수급 및 장중흐름



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Global Strategy

글로벌 증시, 매파적 통화정책에 흔들리지 않는다

- 4월 5주차, 글로벌 중앙은행 통화정책 주간. 전쟁 영향, 매파적 통화정책 ↑
- 글로벌 증시, 매파적 통화정책보다 3가지 요인에 더 반응하며 상승세 지속
- 1. 이란 전쟁 종전 수순, 2. 양호한 미국 기업이익, 3. AI 성장 기대감

Global Strategist 문남중
namjoong.moon@daishin.com

4월 5주차, 글로벌 중앙은행 통화정책 주간. 이란 전쟁 영향, 매파적 통화정책 결과 불가피

4.28일 일본, 29일 캐나다, 30일 미국, 영국, 유럽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이란 전쟁의 종전이 확인되지 않고 있어 4월 통화정책은 금리 동결이라는 매파적 결과는 불가피할 것이다. 각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하(日 금리 인상) 노선은 변하지 않지만 해외 신용리스크에 대한 경계감도 커지는 가운데, 전쟁이 종결되지 않고 고유가가 지속되는 경우 경기 악영향이 중시되어 4월 완화적 통화정책 결정은 보류될 것이다.

BOJ는 춘투 1차 집계 결과, 올해 평균 임금 인상률(5.26%)이 3년 연속 5%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2%대 중반의 근원 물가상승률(신선식품, 에너지 제외 2월 CPI 2.5%)은 4월 금리 인상을 지지하는 요인이다. 하지만 이란 전쟁에 따른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이 커지며 임금–물가 선순환이 약화될 수 있어 7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연준은 유가 충격을 일시적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전쟁 영향이 반영된 3월 경제지표를 간과할 수 없다. 이란 전쟁이 경제에 미칠 영향은 불투명하고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는 점을 바탕으로 금리 동결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ECB는 이란 전쟁에 따른 충격을 주시하며, 통화정책 결정을 단행하기 위해 여러 데이터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 금리 동결을 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란 전쟁 종전 수순, 양호한 미국 기업이익, AI 성장 기대감 등 안도 랠리 기반의 증시 상승세 지속. 비중확대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매파적 통화정책 결정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증시는 이란 전쟁 종전 수순, 미국 양호한 기업이익, AI 성장 기대감이라는 3가지 요인에 더 반응하며 역사적 사상 최고치 행렬을 지속할 것이다.

미국–이란 간 설왕설래하는 모습은 역설적으로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함의로 받아들여야 한다. 올해 1/4분기 미국 어닝시즌은 M7 주도의 기업 실적 개선세가 예상된다(M7 22.8% YoY vs. S&P493 10.1% YoY). S&P500 전체 실적에 대한 기여도 측면에서 M7내 엔비디아, 그 외 기업으로는 샌디스크, 마이크론, 브로드컴 등 AI 관련 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AI 부문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 점도 향후 증시 견인의 한 축이 될 것이다. 5월까지 예상되는 안도랠리 국면에서 얕은 변동성 확대는 비중확대 기회가 될 것이다.

Macro

한국 GDP : 하방만큼 상방도

Economist 이정훈, CFA
jhoon.lee@daishin.com

- 1Q GDP +1.7%QoQ 성장, 수출 호조 외 소비/투자 등 내수도 고르게 반등
- 2026 년 성장률 전망 2.0% → 2.5%로 상향, 명목 성장률은 10% 상회 전망
- 중동 전쟁 불확실하나, 지금은 하방 위험만큼이나 상방도 열려 있음

1 분기 GDP 5 년 여 만에 최대폭 성장

한국 1Q GDP 는 +1.7%QoQ, +3.6%YoY 깜짝 성장해 당사 예상치(+1.1%QoQ)와 시장 전망치(+0.9%)를 모두 큰 폭으로 상회했다. 전기대비 성장률 +1.7%는 코로나 19 확산이 한창이었던 2020 3 분기 +2.2% 이후 최고치이다.

한층 약해진 양극화 성장 논리

이번 GDP 성장이 서프라이즈였던 이유는 단순히 반도체 수출에만 있지 않다. 사실 반도체 덕에 수출이 좋은 것은 모두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민간소비(+0.5%), 건설투자(+2.8%), 설비투자(+4.8%) 등 여러 부문이 고르게 성장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간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에 대한 일부 의구심이 남아있었던 것은 'IT 부문만 좋다'라는 양극화 회복 인식이었다. 그러나 이번 1 분기 성장을 통해 이러한 우려는 상당 부분 누그러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간소비가 +0.5%로 꽤 견고한 성장률을 이어간 것이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4 월 소비심리는 급락했지만, 실제 주간으로 확인되는 신용카드 데이터는 별다른 둔화가 없다. 당사는 현재 고공행진 중인 주가가 가계의 실제 소비와 심리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26 년 2.5% 성장 예상, 불확실성에도 하방만큼이나 상방도 열려 있어

당사는 2025 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0%에서 2.5%로 상향한다. 2 분기 성장률은 1 분기 서프라이즈에 따른 기저 효과, 정유/석화 산업의 생산차질로 일시적으로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전망이다. 그러나 1 분기 깜짝 성장 덕에 산술적으로 연말까지 제로(0) 성장만 유지해도 2.4% 성장이 가능한 상황이 되었다. 2.5% 정도의 성장이라면 올해 GDP 와 소비 모두 마이너스(–) 갭을 모두 해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 모멘텀은 하반기에는 조금씩 둔화될 것으로 보이나, 건설투자를 제외한 내수 부문은 주식 시장이 큰 흔들림을 보이지 않는다면 하반기에도 양호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 정부의 유류비 최고가격제나 조만간 집행이 본격화될 추경 등으로, 일부 취약계층과 달리 경제 전반은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당사는 올해 연간 명목 성장률이 2002 년 이후 처음으로 10%를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물가 상승 때문이 아니라 수출 기업들이 해외에서 돈을 엄청나게 벌어들이고 있기 때문임을 고려할 때, 이러한 금액의 일부는 결국 어떤 형태로든 국내 경제에 파급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중동의 전황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하지만 지금은 하방 위험만큼이나 상방도 열려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만약 수주 내 중동 문제가 원활히 해결된다면, 올해 성장률도 추가 상향될 여지가 있다.

Asset Allocation

봄바람과 함께 찾아온 글로벌 제조업 경기 회복

자산배분/ETF 조승빈
seungbin.cho@daishin.com

- 종전 협상 기대감 속에 투자자들의 관심은 견조한 기업 실적으로 이동
- 글로벌 제조업 경기 회복 본격화. 글로벌 경기와 기업실적에 긍정적 요인
- 연준의 통화정책 전환 우려는 채권시장 변동성 확대 요인

종전 협상 기대감 속에 투자자들의 관심은 견조한 기업 실적으로 이동

전세계 주가지수 단기 급등은 부담요인. 하지만 과거 유사했던 사례의 반등후 1 년 수익률 평균값은 19.2%로 상승 모멘텀 상당기간 유지

글로벌 주식시장의 조정 국면에서도 전세계 주가지수 12 개월 선행 EPS 는 상승 흐름 지속. 악재에도 견조한 기업 실적과 밸류에이션 매력 부각

투자자들의 펀더멘탈에 대한 관심 확대는 실적 성장률과 이익수정비율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한국과 대만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글로벌 제조업 경기 회복 본격화. 글로벌 경기와 기업실적에 긍정적 요인

OECD G20 기업경기 신뢰지수 뚜렷한 회복세. 생산지수가 개선되는 가운데 재고지수는 낮아 글로벌 제조업 경기 추가 개선 가능성 높다고 판단

글로벌 제조업 경기 회복시 기업 실적 상향조정 가능성 확대. 또한 미국 소형주와 신흥국 증시가 강세를 나타냈다는 점도 주목

OECD G20 기업경기 신뢰지수가 개선되는 국면에서 원자재 종합 지수는 대체로 상승. 제조업 생산 확대가 원자재 수요 증가로 연결되기 때문

연준의 통화정책 전환 우려는 채권시장 변동성 확대 요인

최근 연방금리 선물 12 개월물과 채권시장 변동성 지수(MOVE)는 동행. 연준의 통화정책 변화에 대한 우려가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아진 상황

미국은 기준금리 동결이 반영되고 있지만 완화적 스탠스에 대한 기대감은 유지. 반면, 유로존과 일본은 7 월이나 9 월 기준금리 인상 반영중

주식시장이 상승하는 과정에서 채권시장의 내재변동성 하락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 향후 연준의 통화정책 변화 여부는 주식시장에도 중요한 변수

자산배분 전략: 주식에 대한 비중확대 전략 유지

주식: 견조한 기업실적과 함께 글로벌 제조업 경기 회복이 본격화되면서 주식시장 상승 추세 지속 예상. 글로벌 유동성 환경도 양호. 연준이 긴축기조로 전환되기 전까지 주식에 대한 긍정적 시각 유지

채권: 지정학적 불확실성 완화는 긍정적이지만 글로벌 제조업 경기 회복은 중장기적으로 금리 상승 요인. 국채금리 하락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아 장기국채의 투자 매력도는 높지 않다고 판단. 단기채 중심의 대응 유효

일본 부동산

나미선 misun.na@daishin.com

[Market Review] 2월 도쿄 맨션(아파트) 시장과 오피스 시장 이상 무(無)

[경제]:

– 3/10일 내각부, 25년 4분기 GDP 성장률(수정치) 1월 속보치(+0.1%)에서 +0.3%로 상향 조정 (연율 환산치 0.2% → 1.3%)

– 일본 GDP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개인소비]는 속보치(+0.1%)에서 +0.3%로 상향 조정 (최신 서비스 산업 통계 결과 반영)

– [기업 설비투자]는 속보치(+0.2%)에서 +1.3%로 대폭 상향 조정

[통화정책과 유동성]:

– 4월 BOJ 금융통화정책, 일본 현지 언론 시사통신에 따르면 BOJ는 오는 27, 28일 양일간 열리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추가 금리 인상을 보류하는 방향으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

– 2월 M3 평균 잔고(총 통화량) 전월대비 –0.3%, 전년대비 +1.2%

– 2월 일본 시중 도시은행의 대출 약정 평균금리 1.263%로 26개월 연속 상승 (전월비 +0.028%p)

[부동산 업황]:

– 2월 일본 부동산업 경기동향지수 4개월 만에 상승 (전월비 +1.2p)

[토지 시장]:

– 3/17일 국토성, 2026년 전국 평균 공시지가 5년 연속 상승 (전년비 +2.8%)

– 2월 수도권 토지 거래건수 전년비 +18%, 평균 거래가 전년비 +1%

[주택 시장]:

– 2월 전국 신규 주택착공수 5만 7,630호 (전년비 –5%)

– 2월 수도권 신축 맨션 공급량, 전월비 +181% 전년비 +37% 증가한 1,762호. 평균 공급가는 11,025만엔으로 전월비 +32%, 전년비 +39% 상승 (도쿄 23구: 14,280만엔, 전월비 +18% 전년비 +37%)

– 2월 수도권 기존 맨션 거래량, 전월비 +28% 전년비 +2.3% 증가한 4,285건. 평균 거래가는 5,458만엔으로 전월비 –1%, 전년비 +10% 상승 (도쿄 23구: 8,424만엔, 전월비 +1% 전년비 +34% 상승하며 2017년 1월 이후 최고치)

[오피스 시장]:

– 2026년 1분기(잠정치) 도쿄 도심 5구 오피스 거래량 전년비 –55% 감소, 거래규모는 전년비 –38% 감소한 5,784억엔

– 2월 도쿄 도심 5구 오피스 평균 공실률 2.2%로 전월비 +0.1%p 상승. 평당 임대료는 전월비 +1.5% 상승한 21,969엔으로 25개월 연속 상승

Earnings Preview

두산 (000150)

본업 확장과 중장기 시너지 강화

이경연 kyungyeon.lee@daishin.com
이채리 RA cherry.lee@dai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1,920,000 상향
현재주가 (26.04.23)	1,442,000 지주업종

- 두산에너빌리티 지분가치 증가와 전자BG 지속 성장으로 TP +40.1% 상향
- 전자BG 사업 CAPEX 투자가 가져올 향후 실적 개선
- SK실트론 매입으로 후공정 밸류체인 완성→중장기 성장 모멘텀 확보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1,920,000원으로 +40.1% 상향

목표주가 상향은 ①두산에너빌리티 주가 상승에 따른 NAV 증가를 반영하였으며, ②전자BG 부문의 외형 성장 및 수익성 개선과 ③SK실트론 인수를 통한 중장기 성장 모멘텀 확보로 EV/EVITDA 멀티플을 20배 적용하여 산출.

1분기 실적 컨센서스 부합할 전망. Capex 확대로 성장흐름 지속될 전자BG

2026년 1분기 실적은 매출액 4조 7,110억 원(+9.6% yoy), 영업이익 3,260억 원(+64.3% yoy)으로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 전자BG 사업 매출액은 5,280억 원(+31.1% yoy)으로 추정하며, 전자BG를 포함한 자체사업 영업이익은 1,660억 원(+37.1% yoy)으로 예상. 또한, 전자BG의 경우 2026~2027년 합산 5,315억 원 규모의 공격적인 Capex를 발표. 증설 로드맵으로 단순한 외형 확장을 넘어 중장기 실적 가시성을 확보한 점이 이번 자체사업 멀티플 상향의 근거.

SK실트론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협의 중 → 중장기 성장 모멘텀 확보

SK그룹의 자산 리밸런싱 과정에서 두산은 SK실트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협의 중. SK실트론은 2025년 기준 매출액 2조 580억 원, 영업이익 1,930억 원(OPM 9.4%) 달성. "SK실트론의 웨이퍼–전자BG의 CCL–두산테스나"로 이어지는 후공정 밸류체인은 중장기 성장 모멘텀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

한편, SK실트론 인수 성공 시 발생할 사업가치의 온전한 반영(No discount)에 주목. 중복상장 규제 강화 기조를 고려할 때 인수 후 별도 상장 가능성이 낮음. 이에 SK실트론의 가치가 동사의 밸류에이션에 연결되어 주가 부양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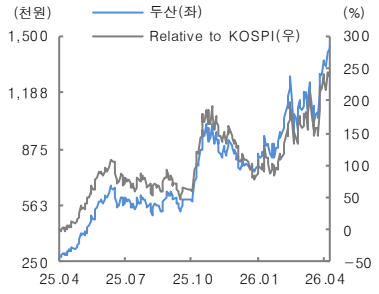
(단위: 십억원, %)

구분	1Q25	4Q25	1Q26(F) 직전추정	1Q26(F) 당사추정	1Q26(F) YoY	1Q26(F) QoQ	1Q26(F) Consensus	2Q26 당사추정	2Q26 YoY	2Q26 QoQ
매출액	4,299	5,687	4,450	4,711	9.6	-17.2	4,763	5,344	0.0	13.4
영업이익	198	275	276	326	64.3	18.5	323	409	14.3	25.5
순이익	24	-148	3	21	-9.7	흑전	86	31	-60.5	45.4

자료: 두산,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KOSPI	6475.81
시가총액	26,102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78%
자본금(보통주)	99십억원
52주 최고/최저	1,442,000원 / 291,50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1,218억원
외국인지분율	18.88%
주요주주	박정원 외 26 인 41.08% 국민연금공단 9.97%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35.3	52.4	84.4	384.7
상대수익률	12.9	17.5	9.5	89.0



영업실적 및 주요 투자지표

(단위: 십억원, 원 , %)

	2024A	2025A	2026F	2027F	2028F
매출액	18,133	19,784	20,968	23,560	25,452
영업이익	1,004	1,063	1,563	2,161	2,450
세전순이익	593	490	988	1,664	1,959
총당기순이익	302	250	770	1,415	1,705
지배지분순이익	-226	76	116	212	256
EPS	-10,562	3,546	5,479	10,064	12,129
PER	NA	220.3	219.6	119.5	99.2
BPS	69,123	72,953	78,814	87,861	92,111
PBR	3.7	10.7	18.3	16.4	15.7
ROE	-14.6	5.0	7.2	12.1	13.5

주: EPS와 BPS, ROE는 지배지분 기준으로 산출 자료: 두산,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Result Comment

LG디스플레이 (0342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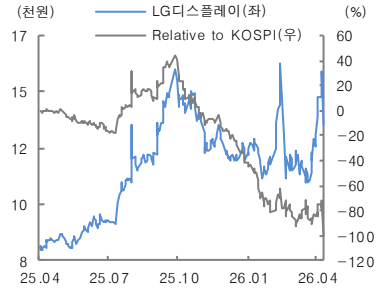
박강호
kangho.park@daishin.com
서지원RA
jiwon0.seo@dai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17,000 유지
현재주가 (26.04.23)	14,010

가전 및 전자부품업종

KOSPI	6475.81
시가총액	6,625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20%
자본금(보통주)	2,500십억원
52주 최고/최저	15,850원 / 8,08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530억원
외국인지분율	30.21%
주요주주	LG전자 외 1 인 36.73% 국민연금공단 5.04%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18.4	5.7	-6.4	56.3
상대수익률	-1.2	-18.5	-44.4	-39.1



1Q 선전, OLED 투자 확대

- 1Q26 영업이익은 1,479억원(338% yoy)으로 컨센서스 부합
- 2H26 영업이익은 8,069억원으로 34.6%(yoy) 추정, 실적 호조
- OLED 매출 확대, 2026년 영업이익 78.5%(yoy) 증가 추정

투자의견 매수(BUY) 및 목표주가 17,000원 유지

2026년 1Q 영업이익은 1,479억원(338% yoy/-13% qoq)으로 종전 추정(2,110억원)을 하회하였으나 컨센서스(1,467억원)대비 부합으로 평가. 매출은 5.53조원으로 -9%(yoy/-23% qoq) 감소. 전년대비 영업이익 개선은 북미 전략거래선의 스마트폰 판매량 증가, OLED 매출 비중 확대 및 원가 개선, 우호적인 환율(원달러 상승) 요인으로 분석. 투자의견 매수(BUY) 및 목표주가 17,000원(2026년 주당순자산(BPS) X 목표 P/B 1.3배 적용<실적 성장기 평균>) 유지, 투자 포인트는

2H26, 대형 OLED 패널 출하량 증가, 모바일향 ASP 상승으로 실적 개선

1) 2026년 하반기 및 연간 영업이익(78.5% yoy)의 성장 전망은 유지. 2026년 2H 영업이익은 8,069억원으로 34.6% 증가(yoy) 추정. 북미 전략거래선이 신모델(폴더블폰) 출시로 스마트폰내 디스플레이 업체간의 점유율 변화가 예상, LG디스플레이는 폴더블폰보다 바타입의 프로 모델에 주력, 전년대비 점유율 증가 및 평균공급단가 상승이 진행될 전망. 북미전략거래선의 2026년 스마트폰 판매 증가 및 폴더블폰 출시 관련한 반사이익을 기대

2) 대형OLED 패널 증가 속에 감가상각비 축소로 수익성 확대가 예상. 2026년 하반기에 미국과 중남미에서 월드컵 개최(경기 수 및 일정이 증가)로 TV 수요 증가를 예상, OLED TV의 일부 가격 인하, 그리고 OLED TV 판매 업체의 증가로 OLED 패널의 성장도 이전대비 높을 것으로 전망

3) IT향 LCD 패널도 저수익 모델의 축소, 고정비 부담의 감소로 추가적인 이익 개선도 가능

(단위: 십억원, %)

구분	1Q25	4Q25	1Q26					2Q26		
			직전추정	잠정치	YoY	QoQ	Consensus	당사추정	YoY	QoQ
매출액	6,065	7,201	5,786	5,534	-8.8	-23.1	5,825	5,487	-1.8	-0.8
영업이익	33	169	211	147	338.4	-12.9	149	-31	적지	적전
순이익	-263	-356	47	-571	적지	적지	47	-29	적전	적지

자료: LG디스플레이,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영업실적 및 주요 투자지표

(단위: 십억원, 원, %)

	2024A	2025A	2026F	2027F	2028F
매출액	26,615	25,810	23,668	24,784	25,980
영업이익	-561	517	923	1,144	1,350
세전순이익	-2,192	502	192	688	850
총당기순이익	-2,409	304	53	585	723
지배지분순이익	-2,563	226	45	573	708
EPS	-5,438	453	91	1,147	1,416
PER	NA	26.1	170.9	13.5	10.9
BPS	13,884	13,208	13,320	14,489	15,927
PBR	0.7	0.9	1.0	0.9	0.8
ROE	-37.2	3.4	0.7	8.2	9.3

주: EPS와 BPS, ROE는 지배지분 기준으로 산출
자료: LG디스플레이,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Results Comment

SK하이닉스 (000660)

Shaper and Long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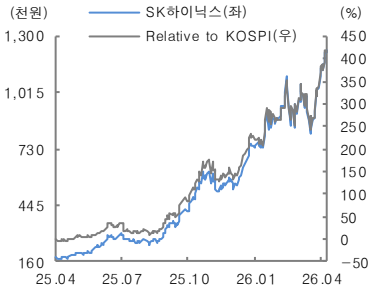
- 메모리반도체 초호황을 재차 입증한 실적 발표
- 순현금 100조원과 주주환원 강화는 현실성 있는 목표
- 목표주가와 매수의견 유지. 적극적 매수 접근이 필요한 시점

류형근
hyungkeun.ryu@daishin.com
서지원RA
jiwon0.seo@dai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1,700,000 유지
현재주가 (26.04.23)	1,225,000
	반도체업종

KOSPI	6475.81
시가총액	873,060십억원
시가총액비중	26.25%
자본금(보통주)	3,581십억원
52주 최고/최저	1,225,000원 / 177,50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34,659억원
외국인지분율	53.05%
주요주주	에스케이스퀘어 외 6 인 20.50% 국민연금공단 7.50%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31.3	59.7	156.0	576.8
상대수익률	9.6	23.1	52.0	163.9



Memory-Centric: Sharper and Longer

금번 실적발표에서 SK하이닉스는 메모리반도체 초호황과 전 제품군에서의 기술 리더십을 강조. 당사의 의견 또한 동일.

1. 초호황의 연장: Sharper and Longer

1) Sharper: 극단적 수급 괴리율을 활용한 공격적 가격 인상 정책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 성과급 충당금의 인식 (영업이익의 10%를 성과 재원으로 활용) 속에서도 단기 이익 성장의 기울기는 시장 예상 대비 가파를 것.

2) Longer: 사이클의 지속력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다년 계약의 확산. 현재 다수의 고객들과 계약 체결을 논의 중인 것으로 추정. 서버용 DRAM 사업의 경우, 사실상 장기 계약 구조로 전환될 것이라는 판단.

– 2027년 말 DRAM Capa는 사실상 정해져 있다는 판단. 제한된 Capa 속, 고객들의 땅 따먹기는 시작. 계약 미체결 고객들의 공급망 우려 또한 심화.

– 이에, 후발 계약은 공급업계에 보다 유리하게 변화될 것이라는 판단 (가격 밴드 상향, 유의미한 Prepayment 비중 등).

2. 2025-2027년 연평균 글로벌 DRAM 생산 증가율은 21% 성장에 불과

Capex의 절대 금액과 생산 증가 폭은 별개로 볼 필요. 급격한 생산 증가는 적어도 2H27까진 나오기 어려울 것. 1원의 투자가 가져올 수 있는 생산 증가 폭이 과거 대비 줄어들었고, 인프라 투자 부담도 급증. 제품 단에서는 HBM의 Capa 잠식 효과 확대 영향을 감안할 필요 (범용 제품과의 교환 비율 증가).

호실적보다 중요한 것

주주환원의 경우,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중이라는 입장을 발표. 당사는 ADR 발행을 통한 기업가치 증진 노력, 특별배당을 통한 주주환원 강화 등이 지속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 목표하는 순현금 100조원은 3Q26 구간 내 달성될 것이며, 충분한 재원을 확보한 만큼 주주환원 또한 지속 강화될 것.

보다 명확한 주주환원 정책이 설립될 때, 기업가치의 극대화 또한 현실화될 수 있다고 생각. 해당 방향성이 구체화되어야 장기 계약의 가치도, Capex Discipline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 강화될 수 있음을 강조.

SK하이닉스는 이러한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회사. 주가에 대한 재평가가 지속 나타날 것이라 생각. 목표주가와 매수의견 유지.

1Q26 Review: 보수적 비용 반영

매출액 52.6조원 (q-q +34%, y-y +66%), 영업이익 37.6조원 (OPM +72%)를 기록. 높아진 시장 기대치를 소폭 하회한 실적이었으나, 보수적 비용 인식 (성과급 충당금 등)을 감안 시, 충분히 훌륭한 실적이었다는 판단.

Results Comment

신한지주 (055550)

EPS증가 + 총환원율 상승= 멀티플 리레이팅 요인

박혜진 hyejin.park@daishin.com
권용수RA yongsu.kwon@dai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120,000
유지

현재주가 (26.04.23) 99,900
은행업종

- 증권 실적 눈부신 개선, 순이익 컨센서스 소폭 상회
- 연체율 상승에 따라 경상적 대손비용 레벨 높아지는 것은 우려 요인
- 새로운 밸류업 정책 제시, '27년부터 3년간 전액 비과세+ 배당 상한X

KOSPI	6,475.81
시가총액	47,418십억원
시가총액비중	1.43%
자본금(보통주)	2,371십억원
52주 최고/최저	106,000원 / 48,75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1,217억원
외국인지분율	61.35%
주요주주	국민연금공단 9.01% BlackRock Fund Advisors 외 13 인 6.12%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11.1	19.1	36.3	104.3
상대수익률	-7.2	-8.2	-19.1	-20.3

투자의견 Buy, 목표주가 120,000원 유지

새로운 밸류업 정책을 제시하였는데, CET1비율 13%~13.4% 범위로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며, 총 환원율에 대한 상한을 없앰과 동시에 '26년 4분기 배당부터 3년간 전액 비과세 배당 실시할 예정. 뿐만 아니라 순이익이 안정적으로 성장한다면 매년 DPS 10% 증가시킬 계획. 로직대로 반영했을 시 올해 현금배당액 1.43조원, 자사주 매입/소각금액 1.4조원으로 총 환원율 51.7% 달성할 것으로 예상. EPS증가와 더불어 환원율은 상승하고 있음

1Q26 지배주주 순이익 1.62조원(QoQ +218% YoY +9%) 기록

1분기 순이익은 당사 추정에 부합하고 컨센서스를 4.8% 상회하는 양호한 실적을 달성. 시중금리가 상승하였고, 핵심예금은 늘어나 조달코스트 하락하여 은행 마진은 전 분기 대비 상승. 원화대출은 가계대출 역성장 하였으나 기업대출이 3% 성장하여 전체 1.4% 성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자이익은 3.02조원으로 4분기 대비 감소하였는데, 이자수익 가운데 대출채권 수익성이 낮아진 영향. 정부의 생산적금융 공급 기조에 따라 기업대출을 크게 늘렸는데, 이 가운데 수익성 낮은 자산도 일부 포함되었을 것으로 추정

비이자이익은, 주지하다시피 증권 실적이 크게 개선되며 1.89조원(QoQ +107%, YoY +26.5%) 달성. 수탁수수료 수익이 3,120억원으로 크게 증가함에 따라 순이익 역시 2,884억원으로 2022년 3분기 사옥매각으로 일회성 이익 크게 반영된 이후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 카드도 영업수익은 상당히 양호하였으나 희망퇴직비용 반영되었음

대손비용은 부동산 PF관련 충당금 영향이 지난해 책준형 신탁 전입을 끝으로 거의 마무리되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오히려 증가. 중소기업 및 카드 중심 연체율 상승하여 경상적인 수준 자체가 높아진 영향. 더불어 그룹 NPL커버리지 비율도 113.6%로 크게 하락하였는데, 자산신탁이 보유한 자산의 매각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기 전까지 매각은 쉽지 않을 것으로 사측은 전망, 110%를 마지노선으로 관리할 계획

영업실적 및 주요 투자지표 (단위: 십억원, 원, %)

	2023	2024	2025	2026E	2027E
순영업수익	14,247	14,580	15,439	15,597	15,655
영업이익	6,101	6,470	7,023	6,845	6,819
순이익	4,368	4,518	4,972	5,480	5,561
YoY(%)	-6.4	3.4	10.0	10.2	1.5
ROE	8.1	8.1	8.6	9.1	8.9
EPS	8,455	9,276	10,075	11,332	11,735
BPS	103,990	115,675	117,459	124,790	132,418
PBR	0.34	0.50	0.67	0.72	0.68
PER	4.16	6.21	7.76	7.98	7.70

자료: 신한지주,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Results Comment

KB금융 (105560)

비은행 계열사의 눈부신 약진

박혜진 hyejin.park@daishin.com
권용수RA yongsu.kwon@dai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190,000
유지

현재주가 158,000
(26.04.23)

은행업종

- 비은행 계열사의 눈부신 약진, 1분기 순이익 사상 최대 실적 달성
- 환율 상승에도 흔들림 없는 CET1 비율, 하반기 자사주 5,100억원 가능
- 금융지주 가운데 증권 비중 가장 높아 '26년 가장 유리

투자의견 Buy, 목표주가 190,000원 유지

1분기 DPS는 지난 1분기 대비 231원 증가한 1,143원 결의하였으며 1.2조원의 자사주 매입은 7월 완료할 예정. 더불어 이사회는 기 보유 자기주식 1,426만주(발행 주식의 3.8%)에 대해 전략 소각 결의. 우리는 동사의 상반기 CET1비율을 13.64%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를 가정할 경우 하반기 추가 5,100억원의 자사주 매입/소각이 가능함. '26년 현금 배당금 1.62조원, 자사주 매입 금액 1.71조원으로 총 환원율 53.7% 기록 전망. 실적에 따라 4분기 DPS상향에 대한 가능성까지 열려 있으므로 추가 환원도 기대해 볼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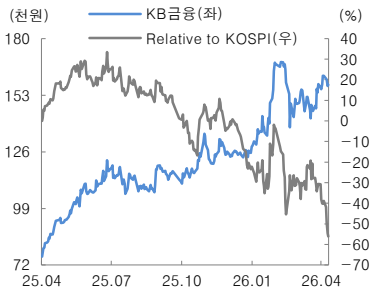
1Q26 지배주주 순이익 1.89조원(QoQ 162% YoY +11.5%) 기록

1분기 순이익은 당사 추정 및 컨센서스를 5% 가량 상회. 시중금리가 상승하였고, 핵심예금은 늘어나 조달코스트 하락하여 은행 마진은 전 분기 대비 상승. 원화대출은 가계대출 역성장 하였으나 기업대출이 1.2% 성장하여 전체 0.4% 성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자이익은 3.34조원으로 4분기 대비 소폭 감소하였는데, 이자수익 가운데 대출채권 수익성이 낮아진 영향. 정부의 생산적 금융 공급 기조에 따라 기업대출을 크게 늘렸는데, 모든 은행들이 같은 영역에 집중하고 있어 경쟁 심화되어 수익성 낮은 자산도 일부 포함되었을 것으로 추정

비이자이익은, 주지하다시피 증권 실적이 크게 개선되며 1.65조원(QoQ +45.7%, YoY +27.8%)으로 역대 최대 실적 달성. 증권 WM 수익이 5,099억원으로 크게 증가함에 따라 순이익 역시 3,478억원으로 창립 이래 최대 실적 달성. 증권업 활황에 따라 지주는 지난 2월 증권에 7,000억원 증자한 바 있음. 카드, 자산운용, 캐피탈, 생명보험 등 계열사 거의 전 부문이 yoy 실적 개선. 대손비용은 연체율 상승에도 지난해까지 보수적 적립한 영향으로 감소하였으며 그룹 CET1비율은 환율 상승, 자사주 매입 영향에도 불구하고 13.63% 달성

KOSPI	6,475.81
시가총액	58,910십억원
시가총액비중	1.77%
자본금(보통주)	2,091십억원
52주 최고/최저	168,800원 / 84,60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1,635억원
외국인지분율	75.76%
주요주주	국민연금공단 8.99% Capital Research and Management Company 외 2인 6.78%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8.7	16.5	37.6	85.9
상대수익률	-9.2	-10.2	-18.3	-27.5



영업실적 및 주요 투자지표 (단위: 십억원, 원, %)

	2023	2024	2025	2026E	2027E
순영업수익	16,229	17,028	17,945	18,606	18,315
영업이익	6,435	8,046	8,531	9,107	8,929
순이익	4,632	5,078	5,843	6,215	6,162
YoY(%)	12.4	9.6	15.1	6.4	-0.8
ROE	8.1	8.8	9.9	10.0	9.5
EPS	11,888	13,034	14,996	15,950	15,815
BPS	146,111	148,573	151,573	160,025	167,052
PER	4.7	5.4	8.4	9.8	9.9
PBR	0.38	0.47	0.83	0.98	0.94

자료: KB금융,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Results Comment

현대차 (005380)

딱 예상한대로

김귀연
gwiyeon.kim@daishin.com

박서영RA
seoyoung.park@dai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660,000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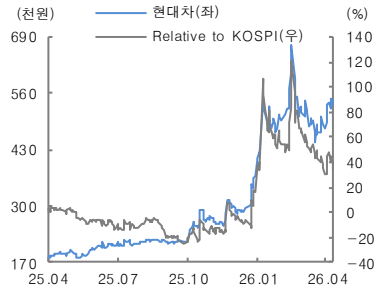
현재주가 532,000
(26.04.23)

자동차업종

- 1Q26 OP 추정(2.5조) 부합/컨센(2.7조) 소폭 하회. 무난한 실적 시현
- 이란 전쟁 우려로 고점 대비 -21% 하락했으나, 하반기 모멘텀에 주목
- 2H26 SDV 페이스카/제네시스 양산 적용/주요 신차 모멘텀 보유

KOSPI	6475.81
시가총액	124,251십억원
시가총액비중	3.74%
자본금(보통주)	1,158십억원
52주 최고/최저	674,000원 / 179,90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8,071억원
외국인지분율	27.52%
주요주주	현대모비스 외 11 인 30.67% 국민연금공단 7.31%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9.7	4.3	111.1	180.0
상대수익률	-8.4	-19.6	25.4	9.2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660,000원 유지

현대차 TP 66만원은 2026~27년 평균 지배순익 11.3조원에 목표배수 13배(1H22 고점 대비 10% 할인) 적용. 이란 전쟁 및 업황 불확실성 지속. 하지만, 하반기 1) 신차 모멘텀(아반떼/투싼 등), 2) SDV 페이스카 출시/제네시스 양산 적용, 3) 미국 RMAC 개소, 4) 미국/한국 피지컬 AI(휴머노이드/자율주행) 관련 정책 기대감 감안 시, 매수 접근 유효. 1Q26 이란 전쟁 본격화되며 고점 대비 -21% 하락. 1H26 실적 불확실성 => 2H26 신차 모멘텀/Physical AI 모멘텀 강화되며 주가 상승 전망

1Q26 매출 46조(YoY +3%, 이하 YoY), OP 2.5조(-31%), OPM 5.5% 시현

OP 추정(2.5조) 부합/컨센(2.7조) 소폭 하회하는 무난한 실적 시현. **[자동차]** 매출 35조(-0.5%), OP 1.8조(-38%), OPM 5.2%. 도매 판매 97.6만대(-2.5%). 미국 관세 -8,600억 영향 지속됐으나, QoQ 6,000억원 축소. 기말 환율 급등(QoQ +5.5%)로 외화판보충비 평가손익 -2,700억 발생. **[금융]** 매출 9조(+22%), OP 5,790억(+1%), OPM 6.4%, **[기타]** 매출 2조(+5%), OP 1,480억(-28%), OPM 6.1% 기록

2Q26 매출 49조(+1%), OP 3.3조(-8%), OPM 6.8% 예상

자동차 매출 38조(+1%), OP 2.5조(-7%), OPM 7% 추정. 2Q26 YoY 이란전쟁/대전 부품공장 화재에 따른 생산 차질 영향 감안해 보수적으로 추정. 2Q26 이후 1) 관세율 하락(25=>15%) 영향 온기 반영, 2) 고환율 효과로 QoQ 실적 개선 방향성은 명확

(단위: 십억원, %)

구분	1Q25	4Q25	1Q26					2Q26		
			직전	잠정치	YoY	QoQ	Consen	추정	YoY	QoQ
매출액	44,408	46,839	45,865	45,939	3.4	-1.9	45,774	48,720	0.9	6.1
영업이익	3,634	1,695	2,482	2,515	-30.8	48.3	2,665	3,327	-7.6	32.3
순이익	3,157	1,029	2,393	2,336	-26.0	127.0	2,465	2,960	-1.3	26.7

자료: 현대차,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영업실적 및 주요 투자지표

(단위: 십억원, 원, %)

	2024A	2025A	2026F	2027F	2028F
매출액	175,231	186,254	195,753	203,923	211,608
영업이익	14,240	11,468	11,950	13,044	13,741
세전순이익	17,781	13,842	15,035	16,268	17,064
총당기순이익	13,230	10,365	11,457	12,396	13,002
지배지분순이익	12,527	9,446	10,884	11,777	12,300
EPS	46,042	35,331	41,011	44,374	46,348
PER	4.6	8.4	12.6	11.7	11.2
BPS	401,009	431,804	469,435	504,536	547,063
PBR	0.5	0.7	1.1	1.1	1.0
ROE	12.4	8.4	9.1	9.1	8.8

주: EPS와 BPS, ROE는 지배지분 기준으로 산출
자료: 현대차,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 Compliance Notice

-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 Research Center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위 애널리스트는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 ✓ 동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